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안숙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and Parents

An-Sook Park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와 그들 부모 간에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요인들이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 대학의 대학생 자녀 197명과 그들의 부모 1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와 t-검정, ANOVA를 이용한 차이검증, 요인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가족기능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7.42 ± 2.28 이었으며, 정상 가족기능군은 65.48%였다.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적응력은 훈육($t=3.100, p<.01$)과 역할($t=.21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간의 가족활동의 공유, 정서적 친밀감 및 가정행사 모임이었으며, 45.9%의 설명력을 보였다. 부모의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사분담,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 및 가정행사 모임이었으며 이들은 51.4%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가족적응력은 가족 간 정서적 친밀감 및 가정행사 모임과 더불어 가족활동의 공유가 중요하고, 부모의 가족결속력은 가족 간 정서적 친밀감 및 가정행사 모임과 더불어 가사분담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using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7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for Windows (ver.22.0). The mean of the family function index of the subjects was 7.42 ± 2.28 on the scale of 1 to 10, and that of the normal family functional group was 65.48%.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amily cohesion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family adaptabi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discipline($t=3.100, p<.01$) and role($t=.212, p<.05$). The factors affecting the family adaptability of the students were the sharing of family activities, emotional intimacy and attending family events, which showed a combined explanatory power of 45.9%. The factors affecting the family cohesion of the parents were housework assignment, emotional intimacy and attending family events, which showed a combined explanatory power of 51.4%. Family emotional intimacy and attending family events, as well as the sharing of family activiti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to the family adapt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s and housework assignment was found to be important to the family cohesion of the parents.

Keywords : adaptability, cohesion, FACES-III, family, family function

*Corresponding Author : An-Sook Park(Jungwon Univ.)

Tel: +82-43-830-8853 email: pkase2001@jwu.ac.kr

Received September 14, 2017

Revised September 26,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질병양상과 건강증진에 관한 요구는 가족을 전체체계로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 대상 가족의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도움을 찾고 받아들이는 등 가족체계의 재조직에 대한 간호요구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하나의 생산단위이자 사회조직의 기초단위이며 동시에 교육의 장이기도 하였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가족에 집중되어 가부장적 지배 권위와 질서 속에 가정은 물질적, 정신적 피난처였으나 오늘날은 국가나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가족에 대한 귀속감이 감퇴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의 일체성과 연대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현대가족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핵가족으로 이들 가족에 대한 간호사의 전략은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간호내용을 교육하여 가족이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친구·이웃들을 찾고, 상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또한 국민건강증진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가족 단위의 접근이 개인의 건강행위에 효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가족유형은 사회적 변화 속에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가족이 처한 상황은 가족의 위기라는 평가가 내려질 만큼 사회문제가 되어 가족의 와해,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2], 저소득가족, 만성질환자가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폭력·학대가족, 문제청소년가족 등 노출된 취약가족에 국한되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3]. 이정렬 등[4]은 가족 전체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에 초점을 두고 ‘정상가족’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아닌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접근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김종성 등[5]은 가족중심 진료에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평가하여 가족의 체계를 들여다보고 증재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계층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

족 기능지수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 지 살펴보는 것은 지역사회 가족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에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동안 가족기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정신지체 및 자폐아 가족[6], 알콜중독자 가족[7-9], 장애인 가족[10] 및 다문화 가족[11,12] 입원환자 가족[13]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가정의학 분야에서 주로 다뤄져왔다. 이러한 시각은 가족구성원 중의 누군가 장애를 갖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등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은 서로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의 생활주기와 변화되는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며, 개인과 가족전체가 성장하지 못하여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고도로 분화된 오늘날의 가족은 정상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의사소통의 단절과 가족 내 구성원 간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갈등적 구조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14] 이에 관한 정책적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가 성년기로 접어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 전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출현, 갱년기 문제 등이 노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으로써[15], 생활주기의 이행기에는 더 많은 변화와 적응력이 필요하다 [5]. 이러한 전환적인 시기에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은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감에도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자녀는 물론, 중년기로 접어드는 부모에게도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는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주어지는 가운데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수직관계에서 평등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성장환경에서의 가족원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는 차원의 가족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적응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가 본인들의 가족기능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 그리고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에 대해 그들의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Duvall의 가족성장 8단계 중 진수기(launching stage of family) 단계에 있는 대학생 가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가족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의 수준과 가족유형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에 대해 대학생 자녀와 부모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 연구대상자의 가족결속력 및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가족결속력 및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2.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사전에 설문참여에 동의한 30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연구목적에 이해한 대학생 본인과 그들의 부모 중 1명이 각각의 설문 참여 가능한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8개로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160명이 산출되었으며, 설문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인 자녀와 부모가 동일문항으로 구성된 다른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낮은 회수율과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00부 중 213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71.0%), 응답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한 197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기

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 및 설문조사방법과 언제든 지 설문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를 서면으로 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과시간 외에 본인 것을 작성토록 하였고, 동일 문항으로 구성된 별도의 설문지를 학생이 부모님께 드려서 작성토록 한 후 연구보조자를 통해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가족기능도 지수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는 Smilkstein[16]에 의해 개발되어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입증된 도구[10]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가족의 적응능력(Adaptation), 가족 간의 동료의식(Partnership), 가족의 성숙(Growth), 가족 간의 애정(Affection), 가족의 문제 해결(Resolve) 등 5개 영역으로 ‘거의 아니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항상 그렇다’ 2점으로 평가하여 7~10점은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보며, 4~6점은 중등도의 가족기능장애, 0~3점은 심한 가족기능장애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지수의 Cronbach's α 값은 .829이었다.

2.3.2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 평가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 측정은 Olson, Portner와 Lavee[17]에 의해 가족체계이론과 Circumplex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FACES-III(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III)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변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18]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가족결속력 10문항(홀수번호), 가족적응력 10문항(짝수번호)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방향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합산한 측정 범위는 10~50점이며, 가족결속력은 합산한 점수 구간에 따라 10~29점은 가족결속력이 이탈된 상태, 30~34점은 분리된 상태, 35~39점은 연결된 상태, 40~50점은 밀착된 상태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적응력은 합산점수 10~20점은 경직된 상태, 21~24점은 구조화된 상태, 25~29점은 유연한 상태, 30~50점은 혼돈된 상태의 4가

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 수준을 조합하여 가족유형을 조화형(Balanced), 중간형(Midrange), 극단형(Extreme)의 가족 3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28 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자녀의 가족결속력은 .861, 자녀의 가족적응력은 .683, 부모의 가족결속력은 .864, 부모의 가족적응력 문항의 신뢰도는 .674이었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기능도 지수,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의 정도와 가족의 유형은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 간의 비교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FACES-III의 각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과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과 부모의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검증,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 30명(15.23%), 여학생 167명(84.77%)이었으며, 1학년 54명(27.41%) 2학년 46명(23.35%), 3학년 52명(26.40%), 4학년 45명(22.84%)이었다. 가족의 종교는 없는 경우가 129명(65.48%)이었고, 있는 가족은 34명(17.4%)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다. 가족구성원의 수는 4인가족이 106명(5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가족 43명(21.43%), 3인가족 34명(17.26%), 6인 이상 가족 10명(5.08%) 2인가족 4명(2.03%)순이었다. 거주주택은 아파트가 67.01%로 가장 많았으며,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순이었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7명 (53.3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하위 59명(29.95%), 중상위 23명(11.68%), 저소득 5명(2.54%), 고소득 3명(1.52%)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연 령층은 50~54세(50.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5~50세(32.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0(15.23)
	Female	167(84.77)
Grade	Freshman	54(27.41)
	Sophomore	46(23.35)
	3 rd Grade	52(26.40)
	4 th Grade	45(22.84)
Religion of family	Christian	34(17.26)
	Catholic	17(8.63)
	Buddhism	11(5.58)
	Others	6(3.05)
Number of family members (Include self)	None	129(65.48)
	2persons	4(2.03)
	3persons	34(17.26)
	4persons	106(53.81)
	5persons	43(21.83)
Residence	6persons	10(5.08)
	Apartment	132(67.01)
	Townhouse	32(16.24)
	Single-family house	25(12.69)
	Multi-family house	8(4.06)
Income level of parents	Low	5(2.54)
	Middle-low	59(29.95)
	Middle class	107(54.31)
	Middle-high	23(11.68)
	High	3(1.52)
Age of parents for answer	40~44	5(2.54)
	45~49	65(32.99)
	50~54	99(50.25)
	55~59	24(12.18)
	Over 60	4(2.03)

3.2 연구대상자의 가족기능지수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기능은 정상 가족기능군 129명(65.48%), 중등도 가족기능장애군 58명(29.44%), 심한 가족기능장애군 10명(5.08%)이었고, 가족기능 지수는 평균 7.42 ± 2.28 이었다(표 2).

Table 2. Distribution of family APGAR score.

(N=197)

Variables	N(%)	Mean±SD
Highly functional family	129(65.48)	
Moderately dysfunctional family	58(29.44)	7.42±2.28
severely dysfunctional family	10(5.08)	

3.3 연구대상자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 및 가족유형 분포

대학생 자녀가 인지하는 가족결속력 평균은 36.55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밀착된 상태 72명(36.55%), 연결된 상태 47명(23.86%), 분리된 상태 46명(23.35%), 이탈된 상태 32명(16.24%)순이었다. 부모가 인지한 가족결속력도 평균 36.94점이었고, 유형별로는 밀착된 상태 79명(40.10%), 연결된 상태 48명(24.37%), 분리된 상태 44명(22.33%), 이탈된 상태 26명(13.19%)순이었다.

대학생 자녀가 본 가족적응력의 평균은 35.07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경직된 상태는 없었고, 혼돈된 상태 174명(82.33%), 유연한 상태 22명(11.17%), 구조화된 상태 1명(0.51%)순이었다.

대학생 부모가 인지한 가족적응력과 유형도 대학생 자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 척도를 통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유형은 중간형 가족이 159명(80.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극단형 가족 32명(16.24%), 조화형 가족 6명(3.05%)순이었다. 대학생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유형도 중간형 가족이 96명(48.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극단형 가족 91명(46.19%), 조화형 가족 10명(5.08%)순이었다(표 3).

3.4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의 차이 및 관련요인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적응력에서는 훈육($t=3.100, p<0.01$)과 역할($t=0.212, p<0.05$)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와 부모가 각각 응답한 리커트 5점 척도로 된 FACES-III 20개의 문항에 대해 주성분 상관행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과 부모의 가족결속력으로 두 개의 중

속변수가 추출되었고, 가사분담,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 가족활동의 공유, 가족 중 지도자의 가변성, 역할 수행, 가족행사에의 모임, 의사결정의 도움 등 7개의 독립변수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족 중 지도자의 가변성과 의사결정의 도움은 신뢰성이 0.6이하로 낮아서 제외되었고, 고유값이 1이상인 5개의 독립변수가 추출되었다(표 5).

3.5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과 부모의 가족결속력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과 부모의 가족결속력에 대한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은 부모의 가족결속력($r=.698, p<0.01$), 가사분담($r=.397, p<0.01$),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r=.619, p<0.01$), 가족활동의 공유($r=.485, p<0.01$), 가족행사에 모임($r=.46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가족결속력은 가사분담($r=.456, p<0.01$),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r=.646, p<0.01$), 가족활동의 공유($r=.478, p<0.01$), 가족행사에 모임($r=.55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사분담은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r=.422, p<0.01$), 가족활동의 공유($r=.413, p<0.01$), 가정행사에 모임($r=.34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역할수행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59, p<0.01$).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가족활동의 공유($r=.491, p<0.01$), 가족행사에 모임($r=.55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활동의 공유는 가족행사에 모임($r=.37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3.6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과 부모의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과 부모의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beta=.408, p<0.01$), 가족활동의 공유($\beta=.192, p<0.01$) 및 가족행사에 모임($\beta=.140, p<0.05$)이었으며, 이들은 45.9%의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3. Distribution of FACES-III and family type.

(N=197)

Characteristics		Student		Parents	
		N(%)	Mean±SD	N(%)	Mean±SD
Family Cohesion	Disengaged	32(16.24)	36.55±6.91	26(13.19)	36.94±6.77
	Separated	46(23.35)		44(22.33)	
	Connected	47(23.86)		48(24.37)	
	Enmeshed	72(36.55)		79(40.10)	
Family Adaptability	Rigid	0	35.07±4.93	0	35.12±4.71
	Structured	1(0.51)		1(0.51)	
	Flexible	22(11.17)		24(12.18)	
	Chaotic	174(88.33)		172(87.31)	
Family Type	Balanced	6(3.05)	-	10(5.08)	-
	Mid range	159(80.71)		96(48.73)	
	Extreme	32(16.24)		91(46.19)	

Table 4. Difference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between students and their parents.

(N=197)

Classification		Variables	Mean±SD		t(p)
			Students	Parents	
family cohesion	Help and discussion	1.My family asks for help.	3.44±0.88	3.52±0.84	-1.691 (0.092)
		17.My family discusses with other family members when they need to make a decision.			
	Sharing of leisure and friends	3.My family accepts each friend as his friend.	3.63±0.88	3.66±0.85	-0.531 (0.596)
		9.My family likes to have free time together.			
	Family boundaries	5.Our family members only work with our families (eg. decision of family matters, travel, eating out, etc.).	3.62±0.83	3.63±0.84	-0.356 (0.722)
		7.My family is more friendly to my family members than others.			
	Emotional bonding	11.My family is very friendly to each other.	3.93±0.97	3.97±0.86	-0.780 (0.436)
		19.It is very important that we stay with family in our house.			
	Sharing of activities, participating in events	13.My family members gather together when there is a ceremony in the house(eg. holidays, sacrifices, birthdays, etc.).	3.64±0.87	3.64±0.84	0.000 (1.000)
		15.My family easily thinks about what my family can do together(eg. hobbies, recreational activities, etc.).			
		Total	36.55±6.91	36.94±6.77	
family adapt-ability	Control	2.My family follows the opinion of my child when solving problems.	3.65±0.80	3.69±0.80	-0.840 (0.402)
		12.In my house, my child makes many decisions.			
	Discipline	4.In my family, I can say opinions about discipline in the house.	3.47±0.83	3.64±0.84	-3.100 (0.002)
		10.If you have something wrong with your home, discuss it with your parents and children.			
	Leadership	6.My family has a different lead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3.20±0.70	3.23±0.55	-0.708 (0.480)
		18.It is difficult to tell who is the leader among our family members.			
	Regulation	8.My family changes the way we do things.	3.54±0.74	3.52±0.80	0.455 (0.649)
		14.The rules we set in our houses change from time to time.			
	Role	16.My family takes charge of household chores alternately.	3.560.74	3.44±0.70	0.212 (0.022)
		20.It is hard to know who does what in our family at home.			
		Total	35.07±4.93	35.12±4.71	

Table 5. Factor analysis of variables with FACES-III

(N=197)

Variables	students family adaptation	parents family cohesion	housework assignment	emotional intimacy	sharing family activities	leader change	role performance	attending family events	decision making
S3	.751								
S4	.717								
S8	.648								
S2	.611								
S9	.565								
S12	.521								
S11	.489								
P2		.716							
P4		.613							
P12		.679							
P1		.678							
P3		.670							
P11		.663							
P7		.539							
P9		.474							
P16			.831						
S16			.689						
S19				.713					
P19				.608					
S7				.550					
S5					.830				
P5					.748				
S15					.508				
P6						.747			
P18						.583			
S6						.540			
P20							.817		
S20							.796		
S13								.726	
P13								.688	
S17									.648
P17									.533
S18									.506
chronbach's α	.863	.884	.809	.765	.735	.469	.680	.807	.148
% of variance	9.654	11.922	9.617	8.761	6.080	5.823	5.237	4.825	4.748
eigenvalue	3.862	4.769	3.847	3.504	2.432	2.329	2.095	1.930	1.899

S=Students, P=Parents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197)

Variables	student family adaptability	parents family cohesion	housework assignment	emotional intimacy	sharing family activities	role performance	attending family events
student family adaptability	1						
parents family cohesion	.698**	1					
housework assignment	.397**	.456**	1				
emotional intimacy	.619**	.646**	.422**	1			
sharing family activities	.485**	.478**	.413**	.491**	1		
role performance	-.031	-.012	-.259**	.053	-.118	1	
attending family events	.469**	.552**	.344**	.551**	.376**	.016	1

p<.05, ** p<.01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N=197)

Variables	student family adaptability					parents family cohesion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281	.258	-	4.969	.000	1.093	.240	-	4.547	.000
housework assignment	.066	.045	.095	1.479	.141	.113	.042	.164	2.714	.007
emotional intimacy	.339	.059	.408	5.699	.000	.311	.055	.378	5.621	.000
sharing family activities	.156	.052	.192	2.976	.003	.112	.049	.139	2.298	.023
role performance	-.005	.038	-.008	-.140	.889	.016	.036	.023	.432	.666
attending family events	.109	.051	0.140	2.135	.034	.182	.048	.234	3.813	.000
	R ² =0.450 F=31.214 Adjusted R ² =0.435 P<.000					R ² =0.515 F=40.514 Adjusted R ² =0.502 P<.000				

부모의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사분담 ($\beta=.164, p<.01$),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beta=.378, p<.01$), 가족행사에 모임($\beta=.234, p<.01$)이었으며, 이들은 51.4%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7).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과 가족 적응력의 차이 및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여자 대학생이며, 학년별로는 고른 분포이고, 도시지역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경제적 여건은 중산층으로 부모의 연령은 45~54세가 대부분인 4인 이상의 핵가족이었다. 가족의 종교가 없는 경우가 65.48%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68명 대상의 연구 [11]에서 25%, 주부 263명 대상의 연구 [19]에서 31.8%가 종교가 없다는 결과로 볼 때, 집안에서 어머니는 종교를 갖고 있으나 가족전체 구성원의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종교가 있는 경우 가족결속력이 더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자살생각이 더 낮고 [20], 청년기 신경증 경향을 낮추어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21],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음 [22]을 감안할 때, 가족들의 일정한 신념체계를 만드는 가족 종교의 가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가족기능지수(APGAR Score)는 10점 만점에 평균 7.42점으로 대체로 높았고, 정상 가족기능군이 대부분인 반면에 3점 이하의 심한 가족기능장애군도 5.08% 있었다. 이는 알콜중독 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평균 5.7점 [8],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6.29점 [11], 여성근로자 가족 5.9점 [23] 보다는 높았으나, 나이제리아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24]의 가족기능 평균 7.94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심한 가족기능장애군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가족에서 15%를 상회하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대상자들의 가족기능은 일반적인 정상가족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중간정도의 가족기능장애군과 심한 가족기능장애군을 합쳐서 가족기능장애군으로 분류한 연구 [24]의 가족기능장애군 15.5%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34.5%로 두 배 이상의 가족기능장애군으로 나타난 바, 우리나라 정상가족들의 가족기능지수와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있는 다른 나라의 가족기능지수를 비교하여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결속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 중 가족구성원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결과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기의 여중생 및 여고생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5],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도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26], 가족기능과 대사증후군의 관계를 분석한 코호트의 표준점수 및 연구참가자의 가족결속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27]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족의 결속력은 가족기능의 내용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기능이며,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서적 유대감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17]. 본 연구에서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유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대가족이 핵가족 보다 가족결속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26,28]와는 다르게 핵가족 시대에도 여전히 가족은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중요한 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결속력을 통해 살펴본 가족유형은 대학생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서 밀착된 상태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발달과업이 아직 청소년기 가족의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의 자율성 존중 보다는 부모에 의한 가족 우선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유형이 분리되거나 과잉 분리된 가족이 많았다는 알콜중독자 가족[9], 밀착된 가족이 없었다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11] 등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써,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은 구심적인 상호작용만을 선택할 경우 내.외적 변화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적응력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역기능적인 가족체계가 될 수 있으며[29], 성인기로 접어든 대학생 자녀의 독립을 지지하고 부모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진수기 가족의 발달적 과업에서 벗어난 모습이므로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족의 정서적 유대라는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횡단적인 연구가 아니라 종단적인 연구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30]는 것을 지지하게 된다.

가족적응력 평균은 50점 만점에 자녀는 35.07점, 부모는 35.12점으로 다른 연구들[11,19,20, 22,25,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영역인 훈육과 역할에서 대학생 자녀와 부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적응력은 가족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 관계와 범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7]. 전체적인 가족적응력 점수가 높음을 미루어 볼 때, 대학생 자녀와 부모들은 외부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가족 간 역할 적응을 무난하게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와 부모 간 차이를 보인 훈육의 세부분항 내용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우리 가족에서 나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와 ‘우리 집에서는 잘못된 일이 생겼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잘잘못을 토론한다’는 것이며, 역할의 세부분항 내용은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가족원이 교대로 책임을 맡는다’와 ‘우리 집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일들을 하는 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에서 대학생 자녀와 부모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가족의 수직적, 폐쇄적 의사소통 문화와 가사분담 역할의 주부 편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가족 의사소통이며[31], 원만하지 않은 가족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32,33]에서 보여주듯이, 문항내용을 보면 가족 의사소통이 혼육에도 작용하는 변수일 것으로 추정되며, 독립적 행동의 기회를 잃기 쉬운 밀착된 상태의 가족이 많았던 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 자녀는 학업이라는 절대적 과업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 속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인 가사분담에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가족적응력을 통한 가족유형에서 혼돈된 상태가 많다는 것은 가족규칙이나 역할들이 일관적이지 않아 가족행동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문제 상황에서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여 변화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대처하는 기전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을 모두 조합하여 살펴 본 대상자들의 가족유형은 중간형이 가장 많아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근접하고 있었으나,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유형에는 중간형과 근소한 차이로 극단형이 많았다. 극단형은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족[8,9,11,34]에서 많이 나타났던 가족유형으로써 이러한 결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연구결과로 가족규칙이나 역할들이 일관적이지 않아 역할구분이 모호한 혼돈된 상태의 가족유형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간유형과 극단적 유형의 가족은 조화된 유형에 비해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계속적으로 정서적 이탈 또는 밀착상태에 있고, 변화에 대하여 경직되어 있거나 변화가 매우 심하여 혼란한 상태로 이중메세지, 이중구속, 또는 비난과 같은 의사소통기술을 사용하는 가족[35]으로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기능은 역기능적인 가족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은정의 가족기능과 대사중후군의 관계 연구[27]에서 코호트 등록 당시의 대사중후군의 위험요소를 보정하여도 극단형 가족기능군에서 조화형 가족기능군에 비해 대사중후군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2.4배였음이 보고 되었는데, 정상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선정된 본 연구의 부모 대상자에서 극단형 가족유형이 46%수준이라는 것은 대사중후군에 있어서 진수기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일반적인 가족체계를 가진 연령대별 정상가족들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

런 요인은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을 높이는 방안과 부모의 가족결속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뉘어 볼 수 있었는데,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 가족활동의 공유와 가족행사에 모임이 대학생 자녀의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가족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거나 다양한 가족행사 모임을 통해 가족 간에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부모의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사분담,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가족행사 모임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역할수행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사분담이 많다면 그만큼 역할수행이 줄어들어 가족활동을 공유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 가정행사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부모의 가족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재현의[26] 저녁식사, 주말여가, 가족휴가, 가족생일, 명절 등의 가족의례 활동에 대해 정해진 행동패턴인 관습성과 가족구성원들의 감정적 투자가 가족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감정적 투자와 계획성이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의 한계이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가족애착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25]과 일 개 대학의 학생임을 고려할 때,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설문 수집과정에 학생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문에 응답한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지 않아서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관계가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고려할 때, 결과가 편향되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거나, 성비를 고려하는 등의 표집방법을 다르게 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의 특정 구성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을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는 가족이라는 집단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부모와 대학생 자녀를 동시에 살펴보는 시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하며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등 기성세대와는 성장 배경이 현격하게 달라진 1990년대에 태어나 자란 현재의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을 동시에 파악해봄으로써, 향후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숙을 위해 가족단위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 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개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새로운 기술의 교육 및 조력자의 역할 등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을 지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을 통해 가족의 구조적인 체계 내에서 어떠한 측면을 강화할 수 있고, 어떤 측면은 준비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므로 가족 체계를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건강증진 중재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Stanhope, J. Lancaster, *Public Health Nursing: Population Centered Health Care in the Community*. 9th ed, p. 595-618, St. Louis, Missouri, Mosby Elsevier, 2016.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
- [3] Y. H. Ahn, *Family Nursing*. p. 101, Hyunmoonsa, Seoul, 2011.
- [4] J. Y. Lee, S. J. Kang, K. S. Kim,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rd ed, p. 132-146, Hyunmoonsa, Seoul, 2017.
- [5] J. S. Kim., M. K. Oh, J. S. Park, "Clinical Application of Family-Centered Health Car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30, pp. 405-414, 2009. DOI: <https://doi.org/10.4082/kjfm.2009.30.6.405>
- [6] K. Y. Hong, "A Study of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Children Suffering from Au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Korea. 2003.
- [7] J. S. Kim, A. Park, Y. S. Lee, Y. C. Cho, "A Study on the Family Type of Alcoholism Patients, Using Family Adaptation and Cooperation Measures(FACES III)", *Chungnam Medical Journal*, vol. 21, no. 1 pp. 121-130, 1994.
- [8] H. H. Shin, S. H. Han, "A Study on FACES III and Family APGAR Score of Alcoholic Family Members", *The Journal of Soonchun hyang University*, vol. 16, no. 2 pp. 375-383, 1993.
- [9] G. Y. Kwon, "A Study on the Cohesion and Adaptability of Alcoholic Familie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Conference Proceedings*, vol. 14 pp.

- 78-92, 1999.
- [10] M. S. Suk,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Function between the Disabled Family and the Non-Disabled Family: An Application of the McMaster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2 pp. 105-131, 2013.
- [11] Y. P. Kim, H. K. Park, H. S. Hwang, "FACES III and Family APGAR Score of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Female Migrant in Jeollanam-Do Provinc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30 pp. 210-220, 2009. DOI: <http://dx.doi.org/10.4082/kjfm.2009.30.3.210>
- [12] S. T. Song, "A Study on The Effects of Ergo-Resilience, Family Func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on Mental Health of The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Seoul, 2014.
- [13] H. Y. So, B. O. Kim, "An Analysis of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Sick Role of the Patients Admitted in Rehabilitation Ward", *Chungnam Medical Journal*, vol. 18, no. 1 pp. 279-291, 1991.
- [14] Y. K. Yoo, "Family Change Pattern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Welfare Issue and Focus*, vol. 258, September, 2014.
- [15] Y. J. Lim,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and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2 pp. 198-206, 2017.
- [16] Smilkstein, G., Ashworth, C., & Montano, D.,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amily APGAR as a Test of Family Function",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15, no. 2 pp. 303-311, 1982.
- [17] Olson, D. H., Portner J., Lavee Y. 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18] Y. H. Kim,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1990.
- [19] S. J. Kwon,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Life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of the Wives who Resid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2, no. 3 pp. 696-704, 2001.
- [20] H. J. Kim, M. A. Jung,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on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43-50, June,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43>
- [21] M. J. Jin, "Correlation between Youth Christian Neuroticism Tendency an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ission, Chongshin University, Korea, 2008.
- [22] K. H. Yang, Y. H. Kim, "The Study on the Family Functionality and Spousal Relationship of Middle-aged Women to Develop Health Promot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2, no. 3 pp. 680-695, March, 2001.
- [23] Y. I. Kim, "Family Nursing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of Women Workers at Medical Institu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18, no. 1 pp. 116-127, 2009.
- [24] AS. Muyibi, I-OO. Ajayi, AE. Irabor, MMA. Ladipo,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Function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Risk Factors in a Primary Care Facility", *African Journal of Primary Health Care & Family Medicine*, vol. 2, no. 1, pp. 177-183, October, 2010. DOI: <https://doi.org/10.4102/phcfm.v2i1.177>
- [25] S. B. Back, "Family Function of Female Students in Adolescent-A Study of Family Cohesibility,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Patter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2005.
- [26] J. H. Bae, S. J. Park "Study on Family Functions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Rituals with 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 185-193,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85>
- [27] E. J. Choi, "Family Functioning in the Development of Metabolic Syndrome in a Primary Care Coh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edicine, Ulsan University, Korea, 2015.
- [28] S. J. Kim, C. S. Lee, G. H. Lee, J. W. Kang, C. W. Park, Y. R. Park, " Family function of Extended family and Nuclear family Using FACES 3",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15, no. 9 pp. 648-655, September, 1994.
- [29] H. J. Cho, E. S. Lim, J. H. Y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Empathy, and Aggression by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4, no. 4 pp. 480-487, December 2013.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3.24.4.480>
- [30] J. M. Kim, J. W. Han,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n Childhood: Analysis of 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437-44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437>
- [31] H. N. Yoo, H. Y. Han, H. M. Oh, M. J. Park, "The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Cohesion on Elderly Women'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1(B) pp. 469-48, February, 2015.
- [32] G. S. Seo, S. Y. Bang,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Life Stress, and Family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 398-40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4.398>
- [33] S. A. Park, K. W.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Family Functioning and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 325-333,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4.325>
- [34] B. S. Ko, W. S. Shim, U. J. Kang, J. Y. Shim, H. L.

Lee, "FACES III in the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21, no. 5 pp. 615-624, 2000.

- [35] Olson, D. H., "Circumplex Model-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vol. 25, pp. 337-351, 1986.
DOI: <https://doi.org/10.1111/j.1545-5300.1986.00337.x>

박 안 숙(An-Sook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직무만족